



# 다한증

다한증이란 우리 몸이 체온 조절에 필요한 땀의 양보다 많은 양의 땀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상태를 말한다. 일부에서는 당뇨병, 갑상선 기능항진증, 두부 손상 등의 원인에 의한 이차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뚜렷한 원인이 없는 건강한 상태에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우를 '본태성 다한증'이라고 한다. 본태성 다한증은 주로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과다하게 땀이 나는 것으로, 심한 경우 겨드랑이 및 얼굴에도 땀이 많이 날 수 있다.

## ① 정의

뚜렷한 원인이 없는 건강한 상태에서 땀이 많이 나는 병을 '본태성 다한증'이라고 한다. 본태성 다한증은 주로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과다하게 땀이 나는 것으로, 심한 경우 겨드랑이 및 얼굴에도 땀이 많이 날 수 있다.

## ② 증상

본태성 다한증의 증상은 거의 모든 환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며,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과다하게 땀이 나며, 긴장한 상태에서 더욱 심해진다. 일부는 필기할 때

종이가 젖을 정도로 땀이 나서 필기나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할 때는 다른 사람과 악수도 하지 못하여 대인 관계까지 지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

## ③ 원인, 병태 생리

본태성 다한증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손바닥과 발바닥에 땀을 내는 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교감신경에 의해 지배되는 sudomotor function의 과민 반응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 진단

1. 병력 및 신체검사만으로도 진단할 수 있는 질병이다.
2. 컴퓨터 적외선 전신 체열 검사  
전신 체열 검사는 다한증 진단에 유일하게 사용되는 진단 방법이다. 손바닥 및 발바닥에서 나는 땀을 기화시키면 교감신경의 항진으로 말초혈관이 수축하여 체온이 떨어지게 된다. 이를 컴퓨터 적외선 체열영상을 이용하여 촬영하면 정확하게 다한증이 있는 부위를 찾아낼 수 있다.

### ● 경과, 예후

교감신경 절제술을 시행하였을 때 다한증은 거의 100% 치료할 수 있다. 수술로 교감신경 절제술을 시행하였을 때 거의 모든 환자에서 수술 직후부터 손바닥에서 땀이 나지 않으며, 교감신경 절제술의 수술 성공률은 거의 100%이다.

### ● 합병증

다한증 자체로는 우리 신체에 기능적인 합병증은 없으나, 다한증이 심할 경우 대인 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고, 심리적 위축이 있을 수 있다.

### ● 치료

내과적인 치료법이 여러 가지 소개되고 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며,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다한증은 수술로 완치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수술할 것을 권한다.

다한증의 수술법은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분야이다. 과거에는 약 10~20cm의 피부 절개를 통해 수술을 시행했으나,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용하여 수술함으로써 입원 기간 및 수술 후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

### ● 예방법

체질에 의한 질병으로 예방법은 없다.

#### ☞이럴 땐 의사에게

다한증이 의심되고 이 때문에 심리적 고통을 받는 환자들은 다한증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나 의사를 찾아가 치료법에 대해 의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출처 : 케이캠프닷컴〉